

제주 여신신화의 변형체제와 그 의미*

일반신본풀이를 중심으로

조현설**

국문 요약

제주 무속신화를 이해하는 유력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단일 텍스트를 넘어 여러 텍스트들이 공유하고 있는 구조를 밝히고 기본 구조가 텍스트마다 어떻게 변형되어 나타나면서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가를 분석하는 일이다. 이런 시각을 일반신 본풀이를 대상으로 구체화해 본 결과 이들 신화의 기본 구조는 저승과 이승의 대립(상극)과 화해(상생)의 관계 구조였다. 이 두 공간이 남녀(男女), 해륙(海陸), 천지(天地), 광음(光陰), 생사(生死), 호오(好惡) 등의 대립항과 관계를 맺으면서 다양한 서사와 이미지의 변형을 형성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치환, 확장, 확산, 전이와 같은 변형의 형식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립은 항상 대립에 머물지 않고 화해를 지향하는데 대립하는 두 항의 화해는 매개항의 매개과정 없이는 이뤄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매개과정은 다음과 같은 원리에 의해 작동된다. 1)남녀가 대립할 경우 화해는 여성에 의해 이뤄지는데 그것은 힘을 통한 제압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보와 포용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부모와 자식의 대립, 특히 아버지와 딸이 대립할 경우 화해는 버려지거나 쫓겨난 딸에 의해 성취된다. 3)여성과 여성이 대립할 경우 힘이 있는 쪽의 양보(증

* 이 논문은 2011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의 학술논문 게재지원을 받았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여)에 의해 화해가 이룩된다. 이때 화해자-여성은 지상에서 태어난 여성, 지혜와 도덕성을 겸비한 여성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원리 안에 제주 여신신화의 신화적 전언이 들어 있다.

주제어: 제주여신신화, 변형체계, 무의식, 치환, 확장, 확산, 전이, 화해

I. 문제제기

한국 무속신화에 여신의 서사가 풍부하다는 것은 기지의 사실이다. 특히 ‘제주 무속신화는 여신 신화’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풍성하고도 독특한 여신의 이야기들을 전승하고 있다. 이들 여신의 서사가 지닌 의미를 탐색하는 작업은 그간 간단없이 이뤄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 신화의 연구사를 되짚어 보고, 본 풀이들을 살피는 과정에서 이들 여신 신화들을 관통하고 있는 서사의 형성 원리, 달리 말하면 여신 신화들에서 무의식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구조적 특성에 대한 심화된 탐구에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의문은, 물론 그간 구조적 접근이 전혀 없었다는 뜻에서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구조주의적 신화분석방법론을 수용하면서 한국 신화의 구조에 대한 분석들이 이뤄져 왔고, 제주신화연구의 경우 현용준의 선구적 업적이 있다. 「천지왕본풀이」에서 ‘천(天)-남(男)-저승-형(兄)-선(善)-질서(秩序)’와 ‘지(地)-여(女)-이승-제(弟)-악(惡)-무질서(無秩序)’라는 쌍분적 세계구조를 발견하고 이를 “먼저 남녀라는 이성의 결합에서 사회질서를 확립하여 했으나 실패하고, 형제라는 동성동혈에 의해서 이를 극복하려 했으나 결국 인간이 가진 문화 때문에 다시 실패한다는 것으로, 인문질서의 혼란은 운명적인 모순임을

시인하는 것”(현용준, 1992: 329)이라고 해석한 것, 「삼승할망본풀이」에 대해 “이 신화의 표면적인 의미 전달은 幽明 兩界의 神이 꽃가꾸기 경쟁으로써 生死의 직능을 관장한다는 정도에 그쳐져 있지만, 그 내면에서는 生-現世-陸-勝利-繁榮, 死-彼世-海-敗北-衰滅이라는 二項對立의 構造論理가 있고, 자연의 매개가 양영역의 융화에 실패하고, 결국 문화에 의해서 현세의 생이 변형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현용준, 1992: 334-335)이라고 분석한 것이 좋은 사례이다. 이처럼 하나의 본풀이 내부에 존재하는 쌍분적 대립 구조를 찾아내어 해석하는 것은 필요하고 의미 있는 작업이다. 그러나 구조분석은 거기서 더 나아가 그런 심층의 대립이 제주 신화라는 신화 집단 내부에서 어떻게 반복적으로 변형되고 있는지, 그 변형의 다발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작업으로 심화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선구적 문제의식은 계승되고 심화되지 못했다.

주지하듯이 한 신화 집단에서 형성되고 전승되는 신화는 어떤 구조적 원리를 바탕으로 삼아 끊임없이 변형된다. 따라서 이 변형의 규칙, 변형의 원리를 해명하면 우리는 한 신화 집단의 정신의 근저에 이르는 축도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제주 여신신화를 관통하고 있는 서사의 규칙, 신화적 변형의 원리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선 여주인공이 등장하는 일반신본풀이를 분석하여 변형의 체계를 찾아내는 작업이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변형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를 분석하여 그 의미를 신화학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그래야 여신의 서사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 변형의 원리와 변형의 다발들을 본풀이가 구연되는 곳을 둘러싼 현실과의 관계를 통해 다시 해석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결과가 제주 여신신화에 대한 기왕의 해석과 다른 길을 보여준다면 이런 시도가 무의미

한 것은 아닐 것이다.

II. 「삼승할망본풀이」라는 준거

제주 큰굿의 초감제에서 「배포도업침」 「천지왕본풀이」 등을 통해 세계의 기원과 질서를 풀어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불도맞이제이고 이 제차에서 불리는 본풀이가 「삼승할망본풀이」이다. 굿의 첫머리의 창조신화를 통해 제시되는 세계의 질서는 천지왕과 소별왕·대별왕 등 남성신들에 의해 구축된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신이 바로 여신인 생불할망이다. 따라서 일반본풀이에 보이는 여신 신화의 변형체계를 살피기 위해서는 「삼승할망본풀이」를 준거로 삼아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지하듯이 「삼승할망본풀이」에는 구삼승과 신삼승, 동해용궁따님애기와 맹진국따님애기라는 인물의 대립항이 설정되어 있다. ‘안사인 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현용준·현승환, 1996) 이야기는 동해용왕따님애기의 출생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동해용왕따님애기는 이름처럼 동해용왕아버님과 서해용궁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다. 한테 열다섯 되었을 때 아버지의 수염을 뽑고, 담뱃대를 꺾고, 어머니의 젖가슴을 잡아 뜯은 죄, 요컨대 불효한 죄로 용궁에서 쫓겨난다. 당본풀이에서 비슷한 짓을 한 궤네킷또가 쫓겨나듯이 무쇠석갑에 갇혀 바다에 버려진다. 불효와 축출, 이것이 동해용궁따님애기의 첫 표정이다. 그러나 맹진국따님애기는 다르다. 석가여래 아버지와 석가모니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는데 ‘부모에 효심하고 일가친척 화목하고 깊은 물에 다리 놓아 월천(越川) 공덕 쌓아가는’ 애기씨가 된다. 그래서 맹진국따님애기는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고는 노각성자부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간다. 효도와 선행, 그리고 승천, 이것이 맹진국따님애기의 첫 표정이다.

이처럼 「삼승할망본풀이」는 처음부터 동해용궁따님애기와 맹진국따님애기를 맞서게 한다. 용왕-석가, 불효녀-효녀, 쫓아내기-불러올리기, 바다-하늘, 무쇠석갑-노각성자부줄 등 다양한 상징을 지닌 의미항들을 대립의 속성으로 제시한다. 그 결과 대립항의 한 쪽을 차지하고 있는 동해용왕따님애기는 부정적인 의미항들의 연쇄를 통해 근본적으로 '결여'를 지닌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해용궁따님애기는 어머니가 인간 세상에 가서 생불왕(삼승할망)이 되라는 신직을 받기는 하지만 임신법은 들었으나 출산법을 듣기 전에 '아버님의 우레 같은 소리에' 무쇠석갑이 절로 단혀 버림으로써 출산법은 모르는 불구의 삼승할망이 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여가 없는 존재인 맹진국따님애기가 호출된다. 그녀는 옥황상제의 임신법과 해산법까지 습득한 온전한 생불왕이 되어 초파일에 인간 세상에 하강한다. 동해용궁과 하늘옥황, 해출(海出)와 천강(天降), 결여와 충족 등의 의미의 대립이 여기서 덧붙태진다.

이제 인세에 두 명의 생불왕이 출현했으므로 승부는 불가피하게 되는데 겨루기의 종목은 천상에 올라가 옥황상제 앞에서 벌이는 '꽃피우기 시합'이다. '꽃피우기'가 종목이 된 이유는 한국 신화의 상징체계에서 꽃이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일 것이다. 꽃의 피고 시드는 이치와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을 동일시한 은유적 사고의 산물이다. 바리데기가 부친을 살리고, 할락궁이가 모친 원강암이를 살리고, 자청비가 문도령을 살리는 도구 역시 서천꽃밭의 환생꽃이 아니던가. 이 같은 겨루기는 다시 거론하겠지만 「천지왕본풀이」 계통의 창조신화에도 나타나는 신화소이다. 이런 신화적 사고체계에서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신이 되려면 당연히 꽃을 번성시킬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온다. 맹진국따님애기는 뿌리 하나에도 수만 가지의 꽃이 피지만 동해용궁따님애기의 꽃은 피기는 하지만 뿌리 하나에 가지 하나 송이 하나뿐이고, 그것도 곧바로 시들어 버린다. 꽃을 피게 하는 능력과 시들게 하는 능력의 대립, 충족과 결여에 부응하는 대립이다.

이처럼 두 할망의 대립을 두고 다양한 의미항들이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두고,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삶과 죽음, 이 세상과 저 세상, 땅과 바다, 승리와 패배, 번영과 쇠퇴 등의 이항대립의 논리를 분석해낸 현용준의 초기 논의는 적실성이 있다. 그러나 「삼승할망본풀이」의 신화적 과녁은 이런 이항대립에 있지 않다. 이항대립이 신화적 논리의 기본이지만 제주 여신신화는 대립에만 머물지 않고 대립을 넘어선 지점, 곧 화해(어울림)를 지향한다. 「삼승할망본풀이」에 그 점이 절적하게 표현되어 있다.

꽃피우기 시험에서 진 동해용궁따님애기는 신직(神職)이 결정되자 ‘화를 벌격 내며 맹진국따님애기가 피운 꽃의 윗가지를 오도독 꺾어 가진다.’ 겨루기에서 패하자 원한을 품고 백일 되는 아이들에게 경풍(驚風) 같은 병을 주겠다는 뜻이다. 갈등이 재차 고조되는 이 지점에서 생불할망 맹진국따님애기는 저승할망 동해용궁따님애기를 살살 달랜다. 생불할망은 “그리 말고 우리 조은 밋음흥기 어찌흥겠느냐?”(현용준·현승환, 1996: 32)라고 하면서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생불을 줄 때, 곧 아이를 점지하고 태어나게 할 때 저승걸레, 걸레삼승, 업게삼승, 산모의 땀은 머리, 산모의 땀이 뺨 치마 적삼에 인정¹⁾을 바치게 하겠다는 약속을 저승할망에게 한다. 여기서 ‘저승걸레’는 구삼승에게 바치는 아기 업는 멜빵을, ‘걸레삼승’은 그 멜빵의

1) 신에게 바치는 財物, 곧 祭物을 말한다.

수호신을, '업계삼승'은 업저지의 수호신이다. 말하자면 아이의 해산과 양육 시 구삼승(저승할망)도 잊지 않고 제물을 바쳐 모시겠다는 약속인 셈이다. 이 제안을 저승할망이 받아들이면서 두 할망의 화해가 이뤄진다.

그런데 두 할망의 화해의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이 '좋은 마음을 먹자'는 생불할망의 권유이다. 원한을 품고 대결의 마음을 먹는 한 대결은 지속된다. 어느 한 쪽이 마음을 고쳐먹지 않는 한 대결의 끝은 있을 수가 없다. 귀신의 작난(作亂)으로 인식된 질병을 이기는 방법도 마찬가지다. 제주 무속에서 4, 7일이 생불할망 날이고, 9일이 저승할망 날이고 그것이 본풀이에 명시된 것도 그런 인식의 결과다. 9일, 19일, 29일에 저승할망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저승할망과 화해하려는 것, 화해를 통해 영아의 사망을 막아보려는 것이다. 이런 화해에 대한 지향이 결국 생불할망의 '좋은 마음하기'라는 표현으로 집약된 셈이다.

「삼승할망본풀이」에는 두 세계의 대립이 구조화되어 있다. 그러나 두 세계는 조로아스터(페르시아) 신화의 빛과 어둠처럼 영원히 대결하지 않는다. 「삼승할망본풀이」의 저승과 이승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되어 있으며, 상호 적대적인 시공이 아니라 서로 어울려 화해(균형)를 이루고 있는 시공이다. 그리고 이 화해는 여신 생불할망으로부터 나온다. 옥황상제는 맹진국따님애기에게 신직을 주면서 저승할망과 제상(祭床)을 나누라고 명하지 않았다. 이 명령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태어난 생불할망의 내부에서 발부된 것이다. 굳이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삼승할망본풀이」의 이런 신화적 지향이 큰굿의 시작인 초감제에서 제시되는 세계의 질서에 대한 담론과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III. 「삼승할망본풀이」의 역설과 변형의 방향

앞서 「삼승할망본풀이」가 ‘꽃피우기 경쟁’이라는 신화소를 창조신 화인 「천지왕본풀이」계 신화와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점은 창조신화와 산육신 신화를 연속선상에서 읽으라는 주문과 같다. 초감제와 불도맞이제가 큰곳에서 함께 치러진다는 점도 양자를 연관시켜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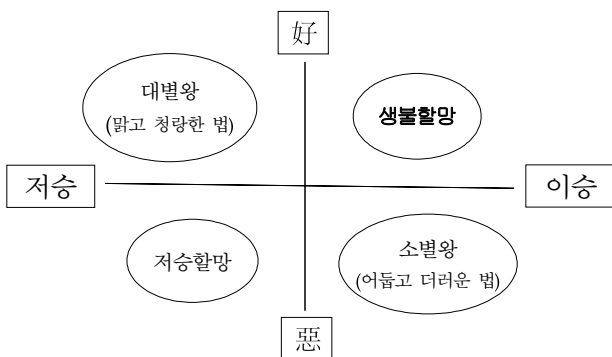
주지하듯이 「천지왕본풀이」(정주병 구연본)에는 천상의 옥황상제 천지왕이 지상의 총맹부인과 천정배필을 맺어 낳은 쌍둥이 형제 대별왕, 소별왕이 등장한다. 형제가 열다섯이 되어 서당공부를 하러 갔다가 후레자식이라는 말을 듣고 분개하여 아버지를 찾아간다. 천지왕이 신표로 남기고 간 박씨를 심어 박 넝쿨을 타고 옥황의 용상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부분까지의 서사는 한반도 지역에서 전승되는 「제석본풀이」와 흡사하다. 다른 부분은 이른바 ‘일월조쟁’ 화소와 ‘인세차지경쟁’ 화소인데 필자의 관심사는 후자 쪽이다. 소별왕과 대별왕이 이승을 차지하게 위해 네 가지 종목의 경쟁을 하는데 세 번째, 네 번째 종목이 「삼승할망본풀이」에 나타나는 ‘꽃피우기 경쟁’ 신화소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대별왕이 낸 수수께끼, 곧 ‘어떤 나무는 평생 이파리가 안지고 어떤 나무는 이파리가 지느냐?’, ‘왜 동산의 풀은 자라지 못해 짧고 구렁의 풀은 잘 자라 길어지느냐?’는 수수께끼 풀이에 연달아 실패한 소별왕이 제안한 것이 바로 꽃피우기 내기이다. 꽃씨를 은동이, 늦동이, 나무동이에 심어 번성꽃이 되느냐, 시드는 꽃이 되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이다. 첫째 둘째 경쟁에서 이긴 대별왕이 이번에도 이긴다. 그러자 소별왕은 다른 내기, 즉 오래 잠자기 시합을 제안한다. 대별왕은 눕자마자 잠이 들고 그 사이 소별왕은 꽃을 바꿔치기한다.

함경도 지역에서 채록된 「창세가」(김쌍돌이 본)에서는 미륵과 석가가 ‘자면서 무릎에서 꽃피우기 내기’를 하는데 그것이 「천지왕본풀이」에서는 두 종목으로 분할되어 있다. 그런데 소별왕이 자면서 이미 피운 꽃을 바꿔치기하는 것을 보면 본래 하나의 내기였던 것이 둘로 나뉜 것으로 판단된다. 「천지왕본풀이」 쪽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다르지 않다. 상대방을 속인 쪽이 세상을 차지한다. 진 쪽은 속인 쪽이 세상을 차지하면서 세상에는 나쁜 일이 많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것이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설운 아시 소별왕아, 이승법이랑 츠지혜여 들어서라마는 인간의 살인 역적 만 흐리라. 고문도독이 만흐리라. 남즈즈식(男子子息) 열다섯 십오세가 뉘며는 이녁[自己] 가속(家屬) 노아두고 놈의 가속 올러르기 만흐리라. 예즈식(女子子息)도 열다섯 십오세가 넘어가민 이녁 뉘편 노아두고 놈의 뉘편 올러르기 만흐리라.”(현용준·현승환, 1996: 22)라는 예언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천지왕본풀이」와 「창세가」의 주목할 만한 차이는 대별왕의 마지막 선택에 있다. 대별왕은 동생에게 경고의 언사를 던진 후 “나는 저승법을 마련흐마. 저승법은 맑고 청량(淸朗)흔 법이로다.”(현용준·현승환, 1996: 22)라고 하면서 저승을 차지하고 저승왕이 된다. 이로써 우주의 주재인 천지왕의 쌍둥이 아들이 각각 저승왕(대별왕), 이승왕(소별왕)의 신직을 차지하게 되는데 「삼승할망본풀이」와의 연속선상에서 괄목(刮目)해야 할 부분은 바로 신직의 배치이다. 「천지왕본풀이」의 ‘저승왕 대별왕—이승왕 소별왕’의 배치 혹은 대립항이 「삼승할망본풀이」의 ‘저승할망 동해용궁따님애기—이승(생불)할망 맹진국따님애기’와 묘한 대응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응이 묘하다는 것은 대별왕이 맑고 청량한 법이라고 한 저승법이 실현되는 저승왕의 공간에 좌정한 저승할망은 아이들의 목숨

을 가져가는 탁하고 어두운 존재이고, 소별왕이 다스리는 도둑·살인·역적이 횡행하는 나쁜 이승에 좌절한 생불할망은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꽃처럼 맑고 밝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왜 두 본풀이의 저승-이승의 관계는 역대응(逆對應), 혹은 역설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이 점은 ‘좋은 마음을 먹자’는 삼승할망의 제안만큼이나 의미심장하다. 「삼승할망본풀이」의 이승과 저승의 대립 구조가 「천지왕본풀이」의 그것과 변형관계, 특히 역설적 변형관계(변형a)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그림 1] 참조).



[그림 1] 남녀신들의 역대응 관계도

「천지왕본풀이」는 천지왕의 쌍둥이 아들이 경쟁을 통해 이승과 저승의 주재자를 결정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천지왕이 쌍둥이로 분화되는 과정은 태극이 음양으로 분화되고 음양의 운동이 태극을 형성한다고 하는 역(易)의 이치와 논리적으로 동일하다. 신화적 사유가 철학의 논리로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음양의 운동에서 긴요한 대목은 음양이 대립하면서도(상극) 보완적인 관계(상생)에 있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음양이 대립을 이루고 있지만 심층을 들

여다보면 음 안에 양, 양 안에 음이 이미 내재화되어 있다는 뜻이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대립한다. 이 대립은 소별왕의 속임수에 의해 지속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황천강은 이승과 저승을 두 세계로 완전히 분할해 놓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의 그림에서 드러나듯이 대별왕의 세계에 저승할망이 있고, 소별왕의 세계에 생불할망이 존재한다. 저승법이 '맑고 청량한 법'이라는 대별왕의 선언도 통념을 뒤집는 역설이지만 대별왕을 저승할망과 짝지운 것도 역설이다. 이 역설을 통해 대별왕 안에 저승할망이 존재함으로써, 그리고 소별왕 안에 생불할망이 존재함으로써 공간적으로는 저승과 이승이,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가치로는 호오가, 그리고 이런 대립에 부가되는 다양한 의미항들이 상극적이면서 상생적인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생각보다 신화는, 제주 무속신화는 이처럼 정교한 논리체계를 내면화하고 있다.

이같이 정교한 신화적 세계 인식의 축도에서, 「삼승할망본풀이」는 생불할망의 위치가 중요롭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천지왕본풀이」가 말하는 세계는 대결로 가득 차 있다. 저승과 이승이 대립할 뿐만 아니라 소별왕이 주재하는 이승에는 대립과 갈등이 차고 넘친다. 그렇지만 이 모든 대립을 화해로 변화시키는 존재가 이승의 '삼승할망'이다. 삼승할망은 싸움을 걸어오는 저승할망의 마음을 위로해줌으로써 '좋은 마음'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창조신이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 놓은 이승과 저승의 대결관계를 협력관계로 변모시킨다. 나아가 소별왕의 세상을 살아가는 어린 새 생명들을 보살핌으로써 소별왕의 세계가 부패되는 것을 막는 역할까지도 수행한다. 근자에 철학자 이기상은 「삼승할망본풀이」를 거론하면서 “내기에 진다고 해서 목숨을 잃거나 어디로 축출되는 것이 아니다.”(이기상, 2007)라는 단서를 통해 우리 곳 문화 전반에 ‘화해’의 원리가 깔

려 있다고 적절히 지적한 바 있다. 궂 자체가 인간과 신, 신과 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추구하는 종교적 의례라는 점에서 이런 시각은 일견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주 무속신화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화해가 여신으로부터 촉발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제주 신화의 변형체계와 관련하여 여신 신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까닭이 이것이다.²⁾

IV. 제주 여신신화의 변형체계

1. 변형b: 「마누라본풀이」

「삼승할망본풀이」에서 저승할망은 아이들에게 경풍(驚風)과 같은 병을 주는 신이고, 이 악신(惡神)에 맞서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신이 생불할망이다. 성장기에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질병의 종류는 적지 않지만 가장 무서운 것으로 인식된 질병 가운데 하나가 마마(천연두)였다. 일찍이 「처용가」가 이를 문제로 삼을 정도로 마마는 죽지 않더라도 얼굴에 사나운 흔적을 남기는 질병이었고, 이 질병은 마마신의 소행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할망본 계열에서 마마신인 서신국마누라(혹은 대별상)는 여신이 아니라 남신이다. 저승할망이 아니라 제 3의 신격이다. 더구나 이 신은 여성을 사악한 존재로 인식하는 대단한 남근주의자이다. “이게 어떤 일이냐! 예성(女性)이라 하는 건 꿈에만 시꾸와도 새물(邪物)인디 남즈(男子)의 대장부 행차(行次路)에 사망(邪妄)흔 예성(女性)이라 흔 게 웬일이냐? 꽤쌌흔

2) 2, 3장의 논의는 「삼승할망과 저승할망의 맞섬과 어울림」(조현설, 2008)을 바탕으로 다시 집필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기존의 견해가 보완되고 일부 견해가 수정되었음을 밝혀둔다.

다.”(현용준, 2007: 105-106)라고 호령하는 장면 속에 이 신격의 정체가 폭로되어 있다.

이런 서신국마누라의 남성중심적 발성이 한국 신화사에서 후대적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할망본 계열의 신화는 ‘저승할망-생불할망’이라는 신화적 대립쌍을 바탕으로 삼아 변형된 형태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말하자면 이 계열에서는 서신국마누라가 저승할망의 자리를 대신한 것이다. 할망본 계열의 신화는 저승할망과 생불할망의 기원 서사가 아니기 때문에 두 신격이 대립하는 방식이 다르다. 서신국마누라와 생불할망은 이승의 삼승할망 자리를 차지하게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신직의 역할과 위계를 두고 다툰다. 생불할망은 마누라 며느리에게 태기를 주는데 마누라님은 할망의 자손에게 마마를 주면서 다툼이 일어난다. 말하자면 선을 악으로 갚는, 여신을 무시하는 남신의 횡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은 점점 절정으로 치닫는다. 양자의 갈등에서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쪽은 물론 생불할망이다. 「생불할망본풀이」에서 맹진국따남매기가 ‘좋은 마음먹기’를 제안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여기서도 ‘자손들의 얼굴을 본래대로 만들어주면 며느리가 해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생불할망의 제안을 서신국마누라님이 받아들이면서 화해로 마무리된다. 대립의 방식은 다르지만 대립을 해결하는 원리는 동일한 셈이다. 여기서 우리는 생불할망본풀이 계열의 신화와 할망본(마누라본풀이) 계열의 신화가 변형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논의했듯이 창세신화에서 인간세상을 차지하기 위한 대립은 남성신 사이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는 신격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창조신화라고 할 수 있는 산육신 신화에서 신직을 차지하기 위한 대립은 여성신 사이에서 발생한다. 그

런데 할망본 계열의 마마신 신화는 남신과 여신 사이의 대립을 서사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마마신신화가 두 유형의 창조신화 사이에서 일종의 ‘매개적 변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별왕이든 대별왕이든 이들은 모두 남성신이다. 다시 말하면 이승이든 저승이든 주재는 남성신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대별상은 생불할망을 대장부의 길을 가로막는 사물(邪物)이라고 공공연히 발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발언은 곧 교정된다. 생불할망이 “그만하난 하늘 노프고 땅 노자운 줄 알겠느냐? 뛰는 제주가 좋대허여도 노는 제주가 싯젠 허여라.”라고 타이르자 대별상은 “예, 과연 잘못하였수다.”(현용준, 2007: 106)라고 자복한다. 이 매개적 변형을 통하여 제주 무속신화는 대결의 상태를 화해의 상태로 이행시키는 능력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2. 변형c: 「삼공본풀이」

변형b는 특정 신격을 매개로 한 변형이다. 산육신인 생불할망의 기원 서사가 있고, 생불할망을 모시는 곳이 있으니, 생불할망이 아들에게 질병을 주는 서신국마누라님을 제압하고 포용하는 신화적 변형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각각 공간적으로는 저승과 이승, 시간적으로는 죽음과 삶, 가치로는 선과 악에 귀속되는 신화적 대립쌍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주 무속신화에 변주되어 나타난다. 제주도 큰 곳에서 「삼승할망본풀이」, 「마누라본풀이」에 이어 구연되는 여신 신화인 「삼공본풀이」에 보이는 변형도 그 하나이다.

「삼공본풀이」는 기본적으로 가족 서사인데 그 가운데서도 부녀관계를 다룬다. 동해용궁따님애기와 맹진국따님애기는 바다와 물으로 출신지가 다르고, 혈연관계도 없는 대립쌍이지만 가문장아기는 강이

영성이서불과 홍운소천궁에궁전궁납의 막내딸로 태어나 쫓겨났기 때문에 부모-자식 사이에 대립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주지하듯이 가문장아기는 ‘누구 덕에 먹고 사느냐’는 부모의 질문에 ‘내 배꼽 아래 선그릇 덕에 먹고 입고 산다’³⁾고 대답한 뒤 “불효막심한 여자식”(현용준·현승환, 1996: 96)이라고 쫓겨난다. 가문장아기가 집을 나가자 부모는 장님이 되고 다시 가난해진다.

본래 강이영성과 홍운소천은 가난해서 밥을 빌어먹는 거지 신세였다. 두 인물 모두 타고난 복이 없는 박복(薄福)한 신세였다. 그런데 결혼하여 셋째인 가문장아기를 낳은 뒤 발복(發福)하여 전답과 우마를 얻고 기와집에 사는 홍복(洪福)을 누리게 된다. 이것은 이 무가의 종장에서 드러나는 바이지만 가문장아기가 본래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상신[前生神]이기 때문에 누리게 된 복이었다. 따라서 ‘누구 덕에 사느냐’고 질문할 주체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인 전상신 가문장아기였다. 그런데 복을 가져다주는 신을 알아보지 못한 부모가 분수를 모르고 질문을 한 것이다. 질문의 주체가 역전되어 있는 셈이다. 이 부모의 오해 때문에 부모(혹은 아버지)와 딸은 대립한다. 이 대립은 달리 말하면 박복(薄福)-다복(多福)(혹은 복이 없는 사람과 복이 있는 사람)의 대립이다.

그런데 가문장아기가 집을 쫓겨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대립이 발생한다. 그것은 두 언니와 동생 사이의 대립이다. 두 언니는 부모의 질문에 천지(天地)와 부모의 덕으로 먹고 산다는 대답을 한다. 사태를 오해한 부모가 바라던 ‘오답’이었다. 그 결과 언니인 은장아기와 늦장아기는 부모의 집에 남고 가문장아기만 집을 떠난다. 두 언니는 부모 쪽을 선택함으로써 복이 없는 계열 속에 남게 된다. 더구나 언

3) 이 대답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조현설(2006: 298) 참조.

니들은 막내딸을 가엾게 여긴 어머니 쪽이 ‘식은 밥에 물이라도 말아 먹고 가라고 부르라는 전언을 ‘아버지, 어머니가 때리러 나온다’고 왜곡한다. 그 결과 전상신인 가문장아기의 신명(神命)에 따라 은장아기는 노뚝돌 아래 청지네로, 낫장아기는 거름 아래 용달버섯(혹은 말뚥버섯)으로 ‘환생’, 곧 변신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가문장아기의 부재와 더불어 집안에 죽음과 어둠이 들이닥친다는 것이다. 부모는 딸들의 소식이 없자 방문을 나서다가 문 윗지방에 눈이 걸려 모두 안맹(眼盲)이 된다. 큰딸은 청지네가 되어 노뚝돌 아래 어둠 속에 살게 된다. 둘째딸은 용달버섯이 되어 거름 속에 묻힌다. 이 죽음 또는 어둠이 흥미롭다는 것은 이 상태가 의미론적으로 동해용궁따님애기의 출신지인 바다(용궁)나 그녀가 신직을 받고 거주하는 저승이라는 공간과 동일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저승-바다-안맹-노뚝돌 아래-거름 속’은 하나의 계열축(은유적 관계)을 형성하면서 죽음이나 박복과 같은 부정적인 사물의 상태라는 의미를 환기시킨다. 이런 의미의 계열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부모, 특히 아버지와 딸의 대립은 서신국마누라(대별상)와 생불할망의 대립, 언니들과 막내의 대립은 저승할망과 생불할망의 대립과 은유적 변형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대립에 의해 조성된 부정적인 상태는 「삼공본풀이」에서도 역설적인 방식으로 해결된다. 맹진국따님애기가 자신에게 올 제물(祭物)을 나눠주면서 좋은 마음을 먹자고 동해용궁따님애기를 설득하고, 남성성을 내세우면서 위세를 부리는 서신국마누라를 생불할망이 제압하듯이 가문장아기는 자신을 내친 부모를 맹인잔치를 통해 되찾아 봉양하고 개명(開明)시킨다. 그 이전에 이미 가문장아기는 스스로 어둠을 쫓는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집에서 쫓겨나 만난

마통이의 일터에서 빛의 상징인 생금을 발견하지 않았던가. 가문장아기와 마통이의 관계는 가문장아기와 부모의 재결합의 전주곡이다. 따라서 '이승-물(땅)-생금-개안'이 또 하나의 계열축을 이룬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대립쌍이 변형되었지만 대립을 넘어 화해를 이루는 쪽은 이 후자의 계열과 결연되어 있는 버려진 자, 타자로서의 여성이라는 제주 여신 신화의 목소리를 여기서도 재확인할 수 있다.

3. 변형d: 「삼공본풀이」/「지장본풀이」

변형은 동일 텍스트 내부에서도 일어나지만 텍스트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앞에서 다룬 「삼공본풀이」와 시왕맞이제에서 불리는 「지장본풀이」의 관계를 통해 그 점을 분석할 수 있다. 「지장본풀이」는 지장신의 내력을 다룬 신화인데 지장신의 정체가 분명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일찍이 「지장본풀이」에 주목했던 이수자는 “지장신이 현재 백정 집단의 수호신으로 되어 있고, 이 집단의 변창을 기원하는 [거무영청대전상]이란 곳에서 이 신화가 불리는 점을 감안하면, 지장본풀이는 고대에 있어 열두거리 큰곳을 행할 때 희생제물을 바치는 의식에서 불렸던 신화라 추정할 수 있다.”(이수자, 2004: 476)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전승되고 있는 본풀이를 보면 지장신의 정체가 다소 모호하다. 동일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안사인 본이나 박남하 본에서는 지장아기씨의 사주를 본 대사가 새남굿을 하라고 하자 뽕나무를 키워 짝 명주로 다리를 놓아 자기 때문에 죽은 부모, 시부모, 남편, 자식을 위해 굿을 하고는 지장의 아기씨로 환생하는 결말을 보이고 있어 바리데기처럼 망자의 한을 씻어 저승으로 천도하는 신격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그런데 서월선 본에서는 동냥한 나락으로 켜 시루떡으로 제물을 삼아 굿을 하면서 자신의 본을

반복적으로 묻다가 “나 갈 곳이 어딜런고? /지장이 본이여.”(진성기, 1991: 163)라고 결론을 내린다. 새남굿이 아니라 심방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신굿의 장면처럼 보이기도 한다.

지장의 아기씨가 행한 것이 새남굿이든 신굿이든 지장의 정체에서 분명한 부분은 둘이다. 하나는 이름이 환기하듯 지장의 아기씨의 소속은 저승이라는 것이다. ‘시왕맞이제’에 등장하는 저승신 가운데 11번째 신이 지장대왕이라는 점, 본래 불교에 유래를 두고 있는 이 신은 바리데기처럼 원혼을 저승으로 천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버려지자 버린 자에게 질병(죽음)을 불러일으킨 바리데기⁴⁾와는 정반대로 존재 자체가 죽음을 불러온다. 안사인 본 계통에서는 4살 때부터 조부모와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하더니 열다섯에 결혼하고는 시부모, 남편, 자식까지 죽음에 이르게 한다. 존재 자체가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가 지장의 아기씨이다. 저승에 소속된 지장아기는 이승의 모든 생명들과 대립한다.

이런 지장의 아기씨의 정체는 그 자체로도 흥미롭지만 가문장애기와 맞세울 때 더 흥미로워진다. 지장의 아기씨가 태어나자 출초상을 불러오는 존재라면 가문장애기는 태어나자 홍복을 불러오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전자가 저승의 어둠을 호명하는 존재라면 후자는 이승에 빛을 비춰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다. 지장의 아기씨와 가문장애기는 단일 텍스트를 넘어 제주의 굿판에서 대립쌍을 형성한다. 텍스트를 더 확장하면 지장의 아기씨는 맹진국따님애기(생불할 망)과 대립할 수도 있다. 전자가 죽이는 능력이 있다면 후자는 살리는 능력을 지닌 신격이기 때문이다.

4) 물론 바리데기가 직접 부친(부모)에게 병을 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바리데기의 유기 이후 병에 걸리게 되었으므로 ‘버린 자에게 질병을 불러왔다’는 표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지장아기와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가문장애기와의 대립쌍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주목되는 대목이 안사인 본 계열의 「지장본풀이」에 보이는 ‘옥황의 부엉새’이다. 이 새는 부모를 잃은 지장이 외삼촌댁의 수양딸로 가서 학대를 받을 때 하늘 밥과 옷을 주어 지켜주던 존재이다. 지장아기의 처지에서 보면 천상에서 보낸 구원자인 셈이다. 그런데 부엉이의 상징적 의미가 그리 단순한 것 같지는 않다. 「세경본풀이」에서 부엉이는 서천꽃 밭에 피어있는 생명꽃인 환생꽃을 울음으로 죽이는 요물이다. 부엉이는 제주 무속에서도 흉조에 가깝다. 지장에게는 구원자지만 지장의 생존이 곧 가까운 가족의 죽음을 의미하므로 부엉이의 조력과 구원은 죽음을 지속, 확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부엉이는 「지장본풀이」에서 결코 긍정적인 동물로 볼 수 없다. 더구나 부엉이는 밤에 활동하는, 밤을 상징하는 새가 아니던가. 부엉새는 지장아기의 등가물, 상징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지장의 아기씨를 동해용궁따님애기와 동일시하고, 지장의 상징동물인 부엉이를 ‘저승·바다·노뎃돌 아래·거름 속’의 계열축에 배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 변형e: 「세경본풀이」

「세경본풀이」에 이르면 변형의 양상은 더 복합적 성격을 띠게 된다. 이 신화가 농경신과 오곡의 기원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생산양식 사이의 충돌과 조정, 나아가 가부장제 하에서 일어나는 젠더 사이의 갈등과 화해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세경본풀이」가 제주 무가 가운데 가장 장편인 이유도 이런 다면적 주제의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세경본풀이」의 주인공 자청비는 맹진국따님애기나 가문장애기와

같은 계열에 있는 여신이다. 이들은 인간 세상의 딸로 태어난 인물들로 이승의 인간들을 돕는 산육신, 전상신, 세경신이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청비와 대립쌍을 형성하는 존재들은 누구인가? 「세경본풀이」는 남녀 사이의 결연(혼인)을 통해 전개되는 신화이므로 상대방에 있는 존재들은 남성들이다. 서사의 종장에서 나란히 세경신의 신직을 받는 문도령과 정수남이그들이다. 둘 가운데 정수남이 자청비의 지상의 짝패라면 문도령은 자청비의 천상(옥황)의 짝패이다. 그리고 이들 대립쌍들은 제주의 무속신화체계 내에서 저승할망-생물할망 짝 등과 변형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먼저 정수남-자청비 짝을 살펴보자. 정수남은 자청비 집안의 하인으로 자청비가 15세에 결연을 맺은 문국성 문도령을 옥황으로 떠나보낸 뒤 갑자기 출현한다. 그 출생의 내력은 텍스트 내에서 분명하지 않지만 서사의 서두에 ‘느진덕정하님 정술택이⁵⁾이라는 하녀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정술택’의 아들로 보인다. 그런데 정수남은 대단히 게으른 인물일 뿐만 아니라 일을 하겠다면서 소 아홉, 말 아홉 마리는 데리고 나가 말려 죽이고는 불로 구워먹는 대식가의 형상을 지닌 인물이다. 이런 정수남의 모습이 관심을 끄는 것은 그가 송당계 당본풀이에 등장하는 소천국의 모습과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이다. 「세경본풀이」가 송당계 당본풀이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는(권태효, 2005) 추정이 가능한 것도 이런 인물의 외형 때문이다.

그런데 필자의 논점과 관련하여 정수남은 두 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하나는 정수남의 형상이 생산양식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자청비는 오곡의 종자를 가지고 천상에서 하강하여 세경신으로 좌정한다. 자청비는 농경의 상징이고, 농경의 시작과 더불어

5) ‘안사인 본’에 나오는 이름. ‘안사인 본’은 현용준·현승환(1996) 참조. 이후 논의도 이 구연본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다른 구연본을 참조한다.

제주의 곳에 들어온 여신이다. 그 대척점에 있는 정수남은 소천국과의 연관성 속에서 볼 때 수렵이라는 생산양식과 관련이 있고, 최종 신직은 하세경신이지만 마블림제와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 목축과 관련이 있는 남신이다(이수자, 2004: 266-268). 따라서 정수남과 자청비의 대립은 목축과 농경이라는 생산양식, 목축신과 농경신이라는 신직 사이의 대립이다.

다른 하나는 정수남과 자청비의 싸움의 형식이다. 정수남은 끊임 없이 자청비를 겁탈하려고 한다. 문도령을 만나게 해준다는 핑계로 자청비를 굴미굴산으로 유인하고, 그 과정에서 온갖 추행을 자행하는 데서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정수남은 하인이지만 상전인 자청비를 핼박한다. 이런 행위가 가능한 이유는 정수남이 성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계급보다 성적 위계가 우선으로 작동하는 것이고(조현설, 2006: 222) 이 작동의 바탕에는 강력한 남성중심적 의식이 깔려 있다. 이에 대해 자청비는 지혜롭게 대응하다가 마침내 청미래덩굴 꼬챙이(안사인 본) 혹은 통설대(담뱃대, 이달춘 본/고술생 본)로 정수남의 귀를 찢어 살해한다. 이 극단적 대립은 목축과 농경의 갈등이 제주 사회에서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성지배 하의 남녀 갈등이 적지 않았고, 특히 여성들이 경험했던 사회적 억압과 그 억압을 넘어서려는 내면의 목소리 또한 강력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여기서 변형관계라는 논점, 그리고 여성의 내면적 목소리와 관련하여 검토해 볼 흥미로운 단서가 있다. 「지장본풀이」에도 등장하는 부엉새가 그것이다. 이달춘, 안사인 본 등에서는 자청비가 정수남을 죽인 후 집에서 쫓겨나 서천꽃밭에 갔을 때 꽃을 말려 죽이는 사물(邪物)로 부엉새가 등장하고, 고술생 본에서는 죽은 문도령을 살리기 위해 서천꽃밭에 갔을 때 부엉새가 등장한다. 그런데 어느 구연본이

나 서로 먼저 잡았다고 싸우는 어린아이들로부터 부엉새를 사서 꽃밭 감관의 인정을 받는 화소를 공유하고 있으나 안사인 본의 경우 다른 화소가 하나 더 개입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아이들에게서 산 부엉새에 화살을 쏘아 던져 둔 후 꽃감관인 황새근간의 집에서 자면서 다시 부엉새를 잡는 화소이다. 이 화소가 특이하다는 것은 “정수남아, 정수남아, 혼정(魂情)이 잊건 부엉새 몸으로 환생(還生)허영 원진 나 젓가심 우의나 올라앉아 보라.”(현용준·현승환, 1996: 236)라고 유인하여 젓가슴에 올라앉은 부엉새를 잡기 때문이다. 이 화소가 제시됨으로써 안사인 본은 두 번 부엉새를 잡는 결과를 초래하여 모순이 생기지만 안사인 본이 굳이 이 화소를 이야기한 것은 부엉새와 정수남이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정수남의 왼 귀에서 오른 귀로 찢른 자청비의 청미래덩굴 꼬챙이와 환생꽃을 죽이는 부엉새의 몸을 꿰뚫은 자청비의 화살을 동일시켰다는 것이다. 안사인 본에서 정수남은 부엉새와 은유적으로 동일시되어 있다. 앞에서 ‘저승-바다-노돛돌 아래-거름속-부엉이’가 동일 계열을 형성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정수남의 환생물인 부엉이를 추가해도 좋을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천상의 짝패인 문도령-자청비의 관계를 검토해 보자. 각각 천상과 지상에 소속된 두 인물은 연애를 통해 결혼에 이르므로 대립 관계로 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그러나 정수남-자청비 관계, 다시 말해 남성지배의 연장선상에서 살펴보면 대립 관계가 확연히 드러난다. 문도령은 많은 신화의 남성 영웅처럼 지상의 여성과 결연을 맺은 후 신표를 남기고 천상으로 떠나버린다. 남은 것은 지상에 남은 여성이 당하는 수난이고, 수난을 통과하여 남성과 재결합하는 것이다. 「제석본풀이」에서 보듯이 부친탐색담이 이어지는 신화가 다수지만 「세경본풀이」는 남편탐색담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 남편을 찾

는 천상여행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남성들의 횡포이다.

문도령은 자청비를 만나러 왔다가 자청비가 귀신인가 사람인가 확인하기 위해 바늘로 손가락을 찌르자 “에이, 부정헌 년 허군!”(이달춘 본)(진성기, 1991: 254) 하고는 옥황으로 돌아가 버린다. 칼선다리 앞에서 자청비가 통곡하자 “죽청비야, 오늘날 죽더라도 이 문칫 구신(鬼神)이 뭘 것이니 허다 섭섭이 생각말라.”(안사인 본)라고”(현용준·현승환, 1996: 248) 위로할 뿐이다. 자청비에 대한 애정보다 남성의 위신, 가문의 법도를 앞세우는 인물이 문도령이다. 문도령의 부친 하늘옥황은 서수왕의 따님애기를 며느리로 맞으려는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자 숯불이 이글거리는 구덩이에 칼선다리를 만들어 놓고 며느리를 시험하는 인물이다. 이는 단지 신이 되기 위한 상징적 통과 의례 이상의 의미, 곧 가부장의 횡포를 상징한다. 문도령을 죽이고 자청비를 ‘돌림각시’로 차지하려고 하는 일천선비 또한 이들의 연장 선상에 있다. 이들은 천상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만 자청비에게 있어 이들이 거하는 공간은 저승, 곧 죽음의 세계와 다름이 없다.

이상과 같은 정수남, 문도령과의 대립을 지속적 대립상태로 두지 않고, 화해로 이끄는 존재는 물론 자청비이다. 자청비는 정수남을 죽였지만 서천꽃밭의 환생꽃으로 되살린다. 되살릴 뿐만 아니라 정수남의 성품을 바꿔놓는다. 되살아난 정수남이 말고삐를 잡고 “허던 행실(行實) 그만두고 집으로 느려간다.”(안사인 본)”(현용준·현승환, 1996: 240)라고 한 대목이 의미심장하다. 존재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정수남이 하세경신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청비는 혼인 뒤 자신의 당부를 무시했다가 독살된 문도령도 되살린다. 그 뿐이 아니다. 이달춘 본을 보면 흥미로운 화소가 추가되어 있다. 되살아난 문도령이 남장한 자청비가 결혼했던 서천꽃밭 주인대감 막내딸아기와 옥황의 명에 따라 작은 집 살림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만 자청비를 무시하고 잊어버린다. 이때 자청비는 문도령을 기다리지 않고 옥황으로부터 오곡의 종자를 받고, 친정에 돌아가 정수남을 데리고 세경땅에 좌정한다. 이런 주체적 행위가 결국은 문도령의 반성을 이끌어내고, 문도령마저 세경신으로 좌정하게 한다. 이렇게 보면 신직의 위계, 곧 문도령이 상세경신, 자청비가 중세경신, 정수남이 하세경신을 차지했다는 외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둘은 중심에 있는 자청비의 두 날개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⁶⁾

자청비의 이런 적극적 화해의 능력은 그녀를 산육신 맹진국따님 애기, 전상신 가문장아기와 같은 계열로 이끈다. 부정적 세력에 의해 수난을 겪지만 수난을 넘어 적대자를 포용하는 방식으로 화해를 이끌어내는 능력, 그리고 그런 능력에 의해 신직에 오른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산육신, 전상신, 세경신은 제주 무속신화의 체계 내에서 하나이면서 셋이라고 해도 좋으리라. 큰굿 내에서 맡은 바 신직은 차이가 있지만 신직에 이르는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5. 변형f: 「문전본풀이」

제주 큰굿의 열 번째 의례인 <성주제>에서 불리는 무가가 「문전본풀이」이다. 한반도 지역의 「칠성본풀이」와 같은 유형으로 분류되는 제주의 「문전본풀이」는 기본적으로 가족 서사, 그 가운데서도 처첩 갈등 서사에 기초하고 있다. 장사를 떠난 남편 남선비의 귀가가 지연되자 찾아 나선 여산부인(토조부인)을 맞이한 노일제데귀일의 딸이 “아이고, 설운 성님아, 오유월(五六月) 한 더위에 우릴 좇아오

6) 이런 맥락에서 보면 ‘본풀이’는 제주 여성이 사회적 젠더를 수용하고, 그것의 포월로 재구성된 여성의 역할을 내면화하는 기제(정진희, 2010: 5-42)라고 한 최근 연구의 결론은 수긍할 만하다고 본다.

저 혼 게 언제나 고생을 흠데가?”(현용준·현승환, 1996: 264)라고 하는 데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전본풀이」는 말하자면 조선 후기 고소설의 중요한 모티프 중의 하나였던 처첩 갈등 문제, 다시 말하면 악한 첩 때문에 발생한 가정의 문제를 악한 첩을 징치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했던 처첩 갈등 서사를 무속신화로 풀어낸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는 「문전본풀이」가 집을 지키는 여러 신들의 내력을 풀어내는 신화이고, 집안에서 발생하는 주요 갈등이 처첩 갈등이라는 점을 자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전본풀이」는 여신이 주인공이기는 하지만 주인공인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계모이자 악의 표상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여신 서사들과 크게 다르다. 그 표상성에서 보면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위치는 「삼승할망본풀이」의 용해용궁따님애기, 「삼공본풀이」에서 돌쩌귀 밑 청지네와 두엄더미 위의 용달버섯이 된 두 언니와 비견된다. 하지만 「문전본풀이」에서는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서사의 중핵이다. 장사를 떠난 남선비가 만난 이 악녀-계모는 본가에 남아 있던 여산부인과 대립쌍을 이룬다. 그런데 여산부인은 서사의 흐름에서 비중이 작다. 남편을 찾아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집에 갔다가 바로 피살되기 때문이다. 피살된 여산부인은 일곱 형제에 의해 되살아나는 서사의 종장까지 본풀이에서 사라진다. 따라서 여산부인이 사라진 뒤 여산부인을 대신해서 노일제대귀일의 딸과 대립 관계를 형성하는 칠형제가 중요하다.

「문전본풀이」에서 칠형제는 일종의 매개항이다. 노일제대귀일의 딸과 여산부인이라는 처첩의 대립쌍은 매개항 없이는 결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여산부인으로 가장하자 눈이 어두운 남편 남선비는 속지만 아들들은 의심한다. ‘속는 남편-속지 않는 아들들’의 대립이 여기에 설정되어 있다. 처첩의 대립쌍이 부자

관계로 변형되어 표현되고 있다. 이 관계 속에서 남편은 첩의 피병을 고치기 위해 전처소생들을 살해하려고 칼을 간다. 어리석은 부친이 첩과 공모함으로써 대립은 절정을 향해 치달는다. 이 절정에서 어리석은 부친까지 도망치다 죽은 구연본들(안사인, 신명옥, 박남하 본)이 생성되고, 악모(惡母) 노일제대귀일은 자살한 뒤 칠형제에 의해 온몸이 찢기는 보복을 당한다.

그런데 이런 대립과 관련하여 갈등이 조성되는 공간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안사인 본에 제시되는 공간은 남선고을(남선비)과 여산고을(여산부인)이다. 이 공간은 구연본에 따라 난산국(박남하 본), 토조나라(이춘아, 신명옥 본)로 바뀌기도 하는데 둘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집이 자리잡은 공간은 남선고을(난산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공간은 “난산국이 어디우파? / 본산국이 어디우파? / 금시상에 붉은 승전땅이우다.”(진성기, 1991: 121)라고 묘사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밝은 땅이다. 부부와 일곱 아들이 가족을 이루어 살고 있는 좋은 땅이다. 그렇다면 남선고을과 대립되는 위치에 있는 오동나라는 어떤 곳인가? 오동나라는 바다 건너 외부에 있는 공간이다. 제주 무속신화에서 바다 혹은 바다 건너는 송당계 신화의 백주또가 가져온 것처럼 새로운 문화가 있는 긍정적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꾀넛깃또처럼 방포를 쏘며 도래하는 무서운 힘들이 있는 부정적 공간이기도 하다. 「문전본풀이」에서 바다 건너 오동나라는 악녀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있는 어둠의 공간, 남선비의 눈을 멀게 하는 공간이다. 동시에 여산부인을 사체를 가둔 ‘연하못’이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오동나라는 동해용궁따님애기의 출처인 용궁, 그의 좌정처인 저승과 같은 계열을 형성한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바다를 건너 남선고을로 들어온다는 점도 동해용궁따님애기와의 관계를 암시한다.

남선고을과 오동나라의 공간적 대립은 서사의 결말에서 부엌과 측간의 공간적 대립으로 변형된다. 추운 연하못에 갇혀 있다 살아난 여산부인은 따뜻한 부엌의 조왕할망으로 좌정하고, 도망치다 통시(측간)의 드딜팡(발판)에 목을 매 죽은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측간의 측신부인(측간동티)으로 좌정하기 때문이다. 저승에서 이승으로 나온 여산부인 조왕할망이 거주하는 공간은 불, 곧 빛이 있는 공간이고, 가족들에게 양식을 공궤하는 생명의 공간이다. 맹진국따님애기의 호적지인 인간세상 맹진국과 같은 계열에 놓을 수 있는 공간, 이승의 공간이다. 이에 대해 이승에서 저승으로 떨어진 노일제대귀일의 딸 측신부인이 거주하는 공간은 어둠의 공간이다. 부엌에서 나온 재를 버리는 공간, 생명을 공궤한 양식들이 재처럼 소멸되는 죽음의 공간이다. 동해용궁따님애기의 호적지인 바다와 동일 계열에 놓을 수 있는 공간, 저승의 공간이다. 빛과 어둠, 불과 물의 상징적 대립이 「문전본풀이」에는 내면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대립은 어떻게 화해에 이르는가? 물론 이 화해는 「삼승할망본풀이」나 「삼공본풀이」의 경우처럼 적극적인 화해의 행위를 통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삼부체로 혼디 살게. / 설운 성님, 계벤 고맙쑤다.”(박남하 본)(진성기, 1991: 125)와 같은 처첩간의 일시적인 화해가 보인다. 그러나 여산부인의 포용은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해코지로 되 돌아온다. 이는 처첩간의 불가능한 화해를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전본풀이」는 가정소설에서는 만날 수 없는 신화적 방식으로 화해를 이룬다. 두 여성을 조왕할망과 측도부인으로 좌정시킴으로써 한 집안에 배치한다. 물론 “그때 내온 법으로 벤소(便所)광 조왕(寵王)이 맞사민 좋지 못하는 법이라, 조왕윗 거 벤소에 못가고 벳소엿 거 조왕의 못 가는 법입네다.”라고 하여 변소와 부엌의 엄격한 분리라는 제주의 민속학적 사실의 기원을 이야기

하지만 한 집안에 변소와 부엌이 없어서는 또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빛과 어둠이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부엌과 변소는 입과 항문의 관계처럼 집이라는 신체의 필수구성요소이다. 처첩 갈등의 서사는 이런 신화의 본질적 속성 위에 실린 것이다.

이런 화해의 또 다른 표징은 악녀인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사체에서 생성되는 창조물이다. 특이하게도 사체화생신화소가 「문전본풀이」에 결합되어 있는 형식이다. 안사인 본을 기준으로 보면 칠형제들이 달려들어 사체를 뜯어 다음과 같이 만든다.

<표 1> 문전본풀이의 사체화생 목록

사체	창조물	사체	창조물
두 다리	드딜팡	발톱	돌굼벳
머리	돛도고리(돼지여물통)	배꼽	굼벳이
머리털	페(海藻)	하문	대전복, 소전복
입	술치	육신을 뺀 가루	각다귀
손톱	쇠굼벳		모기

이 창조물들을 보면 모기나 각다귀처럼 불편을 초래하는 동물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상생활에 긴요한 먹을 것과 쓸 것들이다. 악한 존재의 사체에서 악한 창조물만 생성된 것이 아니라 생활에 유익한 좋은 창조물도 생성되었다는 본풀이의 담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이는 유사성에 기초한 은유적 상상력의 소산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변소가 무용한 것이 아니라 배설물을 받아내는 측도신이 거하는 장소이며 그 측도신이 지키는 배설물이 재창조를 위한 거름이 되는 것처럼 악의 내부에 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 나아가 선의 내부에 또한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

식, 선악(善惡)과 광음(光陰), 변소와 부엌이 상보적 관계에 있다는 신화적 인식을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사체가 이룩한 창조물들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제주의 큰굿에서 불리는 본풀이 가운데 여신신화를 검토하면서 변형의 논리를 탐색해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변형의 체계와 논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변형a는 남신의 세계 차지에 대한 신화적 균형 만들기, 혹은 문제제기로 인해 형성된 변형이다. 남신들이 차지한 저승과 이승, 그리고 양자의 대립관계를 여신들이 전복시킴으로써 저승과 이승, 죽음과 생명, 남성과 여성 사이에 균형이 만들어진다. 이 전복을 통한 균형의 축조술은 제주 무속신화체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이고, 동시에 신화적 사유의 본질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신화적 사고는 늘 대립을 대립상태로 방치하지 않고 어떤 매개의 형식을 통해 상보적 관계로 이행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변형a를 통해 우리는 여신과 여신의 서사가 제주 일반신 본풀이에서 그 매개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매개 작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서사 형식이 변형 b이다. 변형b는 마마신에 대한 무속적 방어기제의 작동뿐만 아니라 남성-마마신의 폭력적 형상을 통해 남성지배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서사적 동인에 의해 형성된 변형이다. 그런데 생불할망이 변형의 과정에 개입하여 양자의 대립을 중개한다. 생불할망이 개입함으로써 기세등등하던 남신 서신국마누라의 위세가 하릴없이 추락하면서 대립은 상

보적 상태로 조정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불할망이 예증하듯이 대립의 매개항이 이미 대립 안에 내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변형c는 가족과 개인의 관계를 문제 삼고 있는데 여기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불효가 속으로 보기에는 효라는 역설의 논리가 개입되어 있다. 저승과 이승이라는 두 대립적 공간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안맹-노돏돌 밑-거름 속이라는 어둠의 상태와 생금장이라는 빛의 상태의 대립으로 변형되어 있다. 따라서 이 변형은 저승과 이승이 은유적 관계에 있는 이승 내부의 어둠과 빛으로 치환된 변형이다. 저승과 이승이라는 공간적 대립이 안맹과 개안, 어둠과 빛이라는 수사학적 대립으로 변형된 결과이다. 물론 여기서도 매개항으로 작용하는 존재는 가문장아기라는 여신이다.

변형d는 단일 텍스트를 넘어 확장된 변형이다. 지장아기는 이승 안으로 들어온 저승이므로 이승의 어떤 신과도 대립한다. 그러나 제주 곳의 맥락, 신화적 맥락에서 보면 가장 적절한 대립항은 가문장아기이다. 각각 저승과 이승에서의 운명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양자는 신화서사를 통해서는 명시적으로 대립하지는 않지만 제주 큰곳 내에서는 저승과 이승이라는 공간적 대립의 형식으로 재현되는데 큰곳을 주관하는 심방에 의해 양자는 매개된다고 할 수 있다.

변형e는 세 갈래 남녀의 결연담으로 확산된 변형이다. 자청비는 문도령, 정수남, 황세곤간의 딸과 다양한 형태로 대립한다. 문도령과의 대립이 하늘(옥황)과 땅(김진국)의 공간적 대립이라면, 정수남과의 대립은 신분적 대립이다. 그리고 자청비-문도령/정수남의 대립은 남성과 여성의 성적 대립이고, 자청비/문도령-정수남의 대립은 생산양식의 대립이다. 덧붙여 황세곤간의 딸과의 대립은 서천꽃밭과 세경땅의 공간적 대립이면서 동시에 여성 사이(처첩)의 대립이다. 공간적 대립에 사회적 대립이 결합되어 있는 양상이다. 이 모든 대립은

자청비라는 매개적 여신에 의해 해소된다. 자청비는 셋 다 포용함으로써 모든 대립을 해결하고 세 세경신 사이의 균형을 이룩한다.

변형f는 매개항을 통해 전이된 변형이다.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는 황세곤간의 딸과 대립하지만 대립을 넘어선다. 그러나 여산부인은 노일제대귀일의 딸에게 피살됨으로써 대립을 해소할 기회를 잃는다. 이런 매개항의 부재 상황은 지속되지 않고 신화의 논리에 따라 역할의 전이를 통해 매개항을 출현시킨다. 여산부인의 아들 칠형제, 특히 막내 녹디성인이 전이된 매개항이 된다. 남편의 부재로 형성된 부부간의 대립, 처첩간의 대립이 부자간의 대립과 계모와 전처 소생의 대립으로 변이되었다가 전이된 매개항인 녹디성인에 의해 대립과 결핍이 해소되는 것이다. 그리고 서사의 결구에서 여산부인과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집이라는 동일 공간 내에 신으로 좌정함으로써 대립을 넘어선 상보성이 실현된다.

이상에서 정리한 a~f의 변형들을 지배하는 기본 구조는 저승과 이승의 대립(상극)과 화해(상생)의 관계이다. 이 두 공간이 남녀(男女), 해륙(海陸), 천지(天地), 광음(光陰), 생사(生死), 호오(好惡) 등의 대립항과 관계를 맺으면서 다양한 서사와 이미지의 변형을 형성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립은 항상 대립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화해를 지향하는데 대립하는 두 항의 화해는 매개항의 매개과정 없이 이룩될 수 없다. 그리고 그 매개과정은 다음과 같은 원리에 의해 작동된다. 1)남녀가 대립할 경우 화해는 여성에 의해 이뤄지는데 그것은 힘을 통한 제압의 방식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양보와 포용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2)부모와 자식의 대립, 특히 아버지와 딸이 대립할 경우 화해는 버려진 딸에 의해 이룩된다. 3)여성과 여성이 대립할 경우 힘이 있는 쪽의 양보(선물)에 의해 화해가 이룩되는데 증여자는 지혜와 도덕성을 겸비한 지상 여성의 형상을 지닌다. 그런데

이 ‘중개자·여신’이라는 제3항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외부가 아니라 대립관계 내부에 이미 존재하는 내부적인 자질이다.

이런 구조적 원리를 통해 제주 여신신화의 신화적 메시지를 읽어야 제주신화의 심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⁷⁾

7) 이 논문은 제주의 일반신본풀이 가운데 여신신화를 중심으로 변형체계를 분석했기 때문에 이 분석 결과는 제한된 텍스트 내에서 유효한 것이며 따라서 시론적인 성격이 강하다. 당신본풀이나 조상신본풀이의 경우에도 이런 분석이 가능한지, 아니면 또 다른 분석 방법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그런 의문에 대한 답변은 후고에 넘기기로 한다. 나아가 이런 분석 결과를 한반도, 또는 동아시아 지역의 여신신화와 비교하여 검증하는 작업도 긴요하리라고 보는데 이 또한 후고를 기다려 보기로 한다.

참고문헌

- 권태효, 2005, 「제주도 무속신화의 생성원천에 대한 새로운 고찰」, 『한국
구전신화의 세계』, 지식산업사.
- 이기상, 2007, 「삼신 할매 신화에서 읽어내는 한국인의 살림살이 이성」,
『해석학연구』 20, 한국해석학회, 1-34.
- 이수자, 2004,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 정진희, 2010, 「제주도 본풀이의 젠더 담론과 그 여성문학적 의의」, 『고전
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5-42.
- 조현설, 2006,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 _____, 2008, 「삼승할망과 저승할망의 맞섬과 어울림-삼승할망 본풀이 읽기」,
『어린이와 문학』 11월호, 160-166.
- 진성기, 1991,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 현용준, 1992,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 _____, 2007,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개정판)』, 각.
- _____. 현승환 역주, 1996,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Abstract

The Variation System and Unconsciousness in Jeju's Goddess Myths

Cho, Hyun-Soul*

I think that the analysis about the structure and variation system is a good way to understand the Jeju's shamanist myths. The basic structure of the Jeju's shamanist myths is the structure of conflict-coexistence of this world and the other world. This structure is modified to the structures of male-female, ocean-land, heaven-earth, light-darkness, life-death, good-bad, and so on. In this process, Simbang(shaman in Jeju) uses the techniques of replacement, enlargement, diffusion and transition.

And then this structure always points toward coexistence of binôme. And in the process of the change from conflict to coexistence, a mediator is positively necessary. The principles of mediation are as follows. 1) Reconciliation is made by female in conflict of between male and female. And this reconciliation is made by not oppression but tolerance. 2) Reconciliation is made by abandoned daughter in conflict of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specially between a father and a daughter. 3) Reconciliation is made by concession(or donation) of powerful side in conflict of between two women. On this occasion, the image of powerful side is a wise woman that she is born on earth. The message of the Jeju's shamanist myths is expressed

* Seoul National University.

unconsciously in the principles of mediation.

Key Words: Jeju's goddess myths, variation system,
unconsciousness, replacement, enlargement,
diffusion, transition, reconciliation

교신: 조현설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E-mail: soulcho@snu.ac.kr)

논문투고일 2011. 8. 1.

수정완료일 2011. 8. 22.

게재확정일 2011. 8. 26.